영천지역 민가의 공간구성과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cess of Variety and Spatial Composition of the Folk Houses in Yeongcheon Province

김 찬 영*
Kim, Chan-Yeong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bserved in the composition and floor plan of folk houses in the Young-cheon region situated in the Southern East inland of Gyeongsangbukdo. According to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folk house, Young-cheon region is supposed to be classified as the Young-Nam region. Our study shows that the open inverse ‘ㄱ’ type composition is the most common among others, which consists the living room, UtChae and one BoosokChae that serves as a living room and a farm shop. The typical floor plan is called ‘Young Nam type’ ‘Hôtjib’ composed of four rooms. Young Nam type of house has a wall in front of the room floor with a door to make the space with the room floor as the internal space. This can be explained by the climatic conditions in the Southern region of Gyeongsangbukdo, which has a very cold winter and has a harsh spring wind in Young-cheon. The structural feature to which we should pay attention is the Young Nam type house has a gambrel roof. The evolutions of the house in the 70s are observed in the roof during the Saema-ul Movement from a hut to a modernized roof. In the 80s, the replacement of the heating system, expansion of rooms, modernization of kitchen, replacement of paper windows, modernization of roof, and construction of amenities had taken place to change the space, construction and structure following the modern house features.

Keywords : Folk House, Utchae, Araechae, Jjockmaru, Saema-ul Movement

주 요 어 : 민가, 옷채, 아래채, 쪽마루, 새마을운동

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민가는 민중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풍토 및 생업조건, 경제여력에 따라 다양한 건축적 행위가 자생적으로 발생하거나 계층 및 주변 지역과의 문화적 교류를 통해 변화하고 발전하기도 한다.

한국 민가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크게 기본형, 서울·중부형, 호남형, 영남형(남동 해안형), 북부형(함경도형, 영동형, 안동형, 황해도형), 제주도형으로 분류해 구분하기도 한다.¹⁾ 이런 분류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풍토(기후 및 지형적 조건) 및 생업조건으로 기반으로 가옥의 배치 및 평면형태, 부속채의 규모와 형태가 달라짐에 기인한 것이다. 이중 영남형은 행정구역상 경상남·북도 일대에 분포하는 민가형이다. 영남형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배치 및 평면, 형태에 다양성이 확인되는 바 기존 연구를 토대로 지

역별 특성을 분석 고찰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현재 농촌지역의 민가는 급속한 현대산업사회의 전환으로 인해 급속히 변모하고 있다. 특히 주생활 편의에 맞춰 공간 및 구조를 개조·변경하거나 증·개축, 용도 변경, 양옥 신축 등 변화의 추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민가의 지역적 분류상 영남형내에 남동 해안형 민가권과 인접한 영천 지역 민가를 채집하여 배치 및 공간구성의 특성을 살펴 보았다. 아울러 민가의 시기별 이용행태 및 변화 양상을 파악해 그 요인도 살펴 보았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연구의 지역적 범위는 경상북도 동남부에 위치한 영천시이다. 조사방법 및 범위는 첫째, 2010~2012년에 걸쳐 현지답사를 통해 민가를 가설측, 대담 사진촬영하여 기초 자료를 수집했다. 둘째,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배치 및 평면의 지역적 특성과 시기적인 변화양

*정회원(주저자, 교신저자),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선임연구원

Corresponding Author: Chan-Yeong Kim, Gyeongsangbukdo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38, Wonjae-2gil, Gumho-eup, Yeongcheon-Si, Gyeongsangbukdo, Korea.
E-mail: kcy3268@hanmail.net

1) 조성기(2006). 한국의 민가(p. 113). 서울: 한울아카데미.

상 및 이용행태 등을 분석 고찰했다. 연구대상 및 범위는 첫째, 건립연대가 1945년 이전이고, 건립시에 초가집이었던 민가 둘째, 건립당시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는 민가를 대상으로 하되, 건립이후 실 증축 또는 개조, 지붕개량 등 주거환경의 변화상을 살필 수 있는 민가는 선별해 조사했다. 연구방법은 첫째, 현장 답사, 실측, 면담, 사진 촬영을 통해 자료를 수집해 정리하고 둘째, 건립시기별로 배치 및 채별 평면을 분석해 시기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아울러 영천 지역 민가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재검토해 보았다. 셋째, 민가의 시기별 변화 요소를 파악해 그 요인과 현상을 분석 고찰하였다.

3. 지역개관

영천시는 영남 동부 내륙에 위치한 ‘三山二水’²⁾의 고장으로 예부터 개성, 한양간 길목이자 인근 지역 산물의 집산지였다. 생업은 금호강 주변의 평야지대를 제외하면 대부분 계단식의 곡간 경작지로 밭 비율이 타 지역보다 높다.³⁾ 1960년대부터 주곡이외에 사과, 자두, 복숭아 등의 과수재배와양파, 마늘, 담배, 고추, 누에고치, 약초 등 특용작물을 많이 재배했다. 1980년대부터포도, 자두는 전국 최대생산지로 꼽히고 있다. 기후적으로는 한서차가 심한데⁴⁾, 특히 겨울과 음력 2월의 봄바람(셋바람)은 곡식의 성장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사람도 바짝바짝 마르게 한다’라고 말한다.⁵⁾ 특히 강우량이 적어 벼농사를 위한 수리관개시설이 유난히 발달하여 현재 못과 보는 전국 최대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영천 지역의 민가를 조사·연구한 것은 없다. 다만 조성기는 한국 민가를 6개 문화지역으로 분류하면서, 영천 지역 민가를 영남형으로 분류했다.⁶⁾ 영남형은 현 행정구역상으로 경상남·북도 지역에 분포하는 민가형이며, 내부적으로는 남동 해안형⁷⁾으로 소구분한다. 영남형과 남동 해안형은 일반적으로 정지+큰방+마루(안침)+작은방 순으로 배열된 4칸 一자형의 홑집이란 점, 마루가 안침의 중앙에 위치하고 그 양쪽으로 온돌방을 배열해 정면성을 강조한 점이 같다. 다만 대청과 작은방을 횡분할해 필요공간을 확충

한 점에 차이가 있다. 또 영남형의 대청은 전면이 개방된 생활·의례 공간이지만, 남동 해안형은 전면에 문을 단 폐쇄적인 안침을 두었다. 안침은 호남형에서 전면에 판장문을 단 폐쇄적인 수장공간을 지칭한다. 다만 남동 해안형의 안침은 전면에 세살문을 달아 생활·의례 기능을 높였고, 작은방을 횡분할하여 ‘곡침’, ‘도장’, ‘광방’ 등 수장공간을 확보한 점이 다르다. 이런 남동 해안형의 분포권은 영천·청송 지방까지 분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남형내에서도 남동 해안형이 분포하는 영천 지역의 민가를 조사·분석하여 그 특성을 살펴 보았다. 아울러 민가의 시기별 변화요소들을 파악해 원인과 현상을 살펴 보고자 했다.

III. 배치 및 공간구성

1. 배치구성

영천 지역 민가 45가옥을 조사한 결과, 채 구성은 옷채, 아래채, 기타 부속채 등으로 구분된다. 배치구성은 옷채 단독인 경우, 옷채+아래채, 옷채+아래채+부속채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아래채 및 부속채의 건립여부와 규모, 형태는 경제력에 따라 다양하게 세분할 수 있다.⁸⁾ 이를 유형 분류하면, 옷채+아래채 조합의 튼 一자형이 28가옥(64.4%), 二자형 1가옥, 옷채 단독형이 7가옥(15.6%), 옷채+아래채+부속채 조합의 튼 二자형이 7가옥(13.3%), 기타 2가옥이다. 채 구성 비율로 보면, 옷채 앞에 아래채 1동을 직각 배치한 튼 一자형이 가장 일반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배치 유형은 <Table 1>처럼 여러 채가 동시에 건립된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옷채를 먼저 짓고 경제여력에 따라 아래채나 부속채를 지은 경우가 많다.

현재 옷채 단독 배치도 옷채만 건립된 경우와 옷채에 아래채 1~2동을 동시 또는 후대에 건립했는데 현재 옷채만 남은 경우로 세분된다. 채별 건립시기와 경제여건을 고려한 영천 지역 민가의 배치 형식은 옷채 단독의 一자형 또는 옷채+아래채의 튼 一자형을 기본형으로 하며 여기에 부속채 1동을 더 추가하면 튼 二·┐자형으로 변화진화하는 양상을 띤다.

옷채 단독 구성은 계층상 소농층에 규모는 3칸 오막살이집 계열의 많다. 다만 아래채의 건립여부와 규모, 형태

2) 신증동국여지승람 형승 조에 二水는 보현산 왼쪽의 자호천, 오른쪽의 고현천을 지칭한 듯하고, 三山은 뚜렷하지 않는데 작계는 작산, 마현산, 유봉산, 넓게는 보현산, 팔공산, 운주산 혹은 채악산으로 보기도 한다.

3) 영천시(2011). 영천시 통계연보. 영천: 영천시회계과.

4) 영천군정사편찬위원회(1994). 영천군정사. 영천: 영천시. 1960년부터 년도별 기온, 강수량, 기상개황에서 최고, 최저기온은 경북 북부지방과 유사하고, 강수량은 타 지역 평균치 이하이다.

5) 영천문화원(1997). 영천의 문화. 영천: 한빛

6) 조성기(2006). 한국의 민가(p. 113). 서울: 한울아카데미. 한국 민가 자료를 바탕으로 한반도 문화 지역을 ① 기본형(호서형·울릉도형) ② 서울·중부형 ③ 영남형(남동 해안형) ④ 호남형 ⑤ 북부형(함경도형, 영동형, 안동형, 황해도형) ⑥ 제주도형으로 구분했다.

7) 조성기(2006). 한국의 민가(pp. 172-189). 서울: 한울아카데미. 남동 해안 지역 민가는 전라남도의 남부 지방을 포함해 경상남도의 남해 도서 연안을 따라 경상북도 포항시에 이르며, 일부는 영천·청송 지방에서까지 확산되고 있다. 남동 해안 지방 민가의 일반형은 정지·큰방·안침·작은방의 4칸 一자형이다. 이중 안침은 영남 지방 민가의 대청과 동일하며, 민가의 정면성과 장소적 위치가 강조되는 것이다. 즉 호남 지방 민가에서 마루를 칸 수장 공간인 안침이 남동 해안 지방 민가에서는 생활·의례공간으로 바뀌고 창호도 널문에서 굽널세살문·들어열개세살문 등으로 진화하는 양상을 띤다.

8) 채 구성은 살림채를 옷채(또는 큰채)와 별채인 부속채는 아래채, 사랑채, 방앗간채, 도장, 초당채, 마구간채 등으로 구분해 부른다. 아래채는 경제력 및 기능에 따라 규모, 형태, 구조, 건축 주체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Object of Study

No	Name	Address	Chae/Building	Kan/Floor Plan
1	Kim Gan-Seop	Sangsinsin-Ri Jayang-Myeon	Utchae-1850 Araechnae-1900	*Utchae-4×1, Jungji+Kunbang+Maru+Meolbang *Araechnae-2×1, Aretbang+Dojang
2	Kim Yun-Seop	Sangsinsin-Ri Jayang-Myeon	Utchae-1912	*Utchae-4×1, Jungji+Kunbang+Maru+Meolbang
3	Kim Jae-Pil	Sangsinsin-Ri Jayang-Myeon	Utchae-1900 Araechnae-1974	*Utchae-3×1, Jungji+Kunbang+Meolbang*Araechnae-3×1, Sarangbang, +Stable
4	Gang Hye-Won	Sangsinsin-Ri Jayang-Myeon	Utchae-1900	*Utchae-3×1, Jungji+Kunbang+Meolbang
5	Gang Jang-Won	Sangsinsin-Ri Jayang-Myeon	Utchae-1850 Araechnae-1920	*Utchae-4×1, Jungji+Kunbang+Maru+Meolbang*Araechnae-4×1, Bangakan+Aretbang+Chobangdang+Dojang
6	Empty Housea	Sinbang-Ri Jayang-Myeon	Utchae-1900	*Utchae-3×1, Jungji+Kunbang+Meolbang
7	Gang Sun-Ye	Sinbang-Ri Jayang-Myeon	Utchae-1900 Araechnae-1930	*Utchae-4×1, Jungji+Kunbang+Maru+Meolbang *Araechnae-2×1, Sarangbang+Stable
8	Kim Gi-Uk	Samgu-Ri Jayang-Myeon	Utchae-1900 Araechnae-1930	*Utchae-3×1, Jungji+Kunbang+Meolbang *Araechnae-3×1, Sarangbang+Sarangbang+Stable
9	Jung Gyang-Dal	Doil-ri Jayang-Myeon	Utchae-1900 Warehouse-1980	*Utchae-4×1, Jungji+Kunbang+Jungganbang+Meolbang
10	Jung Yung-Chil	Chunghyo-Ri, Jayang-Myeon	Utchae-1900 Araechnae-1970 Dojang-2010	*Utchae-3×1, Jungji+Kunbang+Meolbang *Araechnae-3×1, Bangakan+Sarangbang+Gatbang
11	Empty House	Bohyeon-Ri Jayang-Myeon	Utchae-1890 Araechnae-1930 Dojang-1960	*Utchae-3×1, Jungji+Kunbang+Meolbang *Araechnae-3×1, Stable+Sarangbang+Gatbang *Dojang-2×1, Stable
12	Kim Ok-Seok	Bohyeon-Ri Jayang-Myeon	Utchae-1900 Araechnae-1970	*Utchae-3×1, Jungji+Kunbang+Meolbang *Araechnae-3×1, Dojang+Stable+Bathroom
13	Ham Jak-Ji	Bohyeon-Ri Jayang-Myeon	Utchae-1940 Araechnae-1940	*Utchae-3×1, Jungji+Kunbang+Meolbang*Araechnae-3×1, Stable+Sarangbang+Gatbang
14	Jung Ho-Jin	Bohyeon-Ri Jayang-Myeon	Utchae-1920 Araechnae-1920 Duji-1960	*Utchae-3×1, Jungji+Kunbang+Meolbang*Araechnae-3×1, Stable+Sarangbang+Sarangbang
15	Lee Dong-Gun	Bohyeon-Ri Jayang-Myeon	Utchae-1860 Araechnae-1972 Duji-1960	*Utchae-3×1, Jungji+Kunbang+Meolbang*Araechnae-3×1, Stable+Sarangbang+Sarangbang

Table 1. Continued

16	Lee Hea-Gwan	Bohyeon-Ri Jayang-Myeon	Utchae-1900 Araechnae-1950	*Utchae-3×1, Jungji+Kunbang+Meolbang*Araechnae-3×1, Aretbang+Sarangbang+Laundry room
17	Lee Tae-Dong	Bohyeon-Ri Jayang-Myeon	Utchae-1880 Araechnae-1940	*Utchae-4×1, Jungji+Kunbang+Maru+Meolbang *Araechnae-3×1, Bangakan+Stable+Bathroom
18	Jung Pil-Oh	Bohyeon-Ri Jayang-Myeon	Utchae-1900 Araechnae-1990	*Utchae-3×1, Jungji+Kunbang+Meolbang*Araechnae-3×1, Room+Dojang
19	Lee Ok-Saeng	Bohyeon-Ri Jayang-Myeon	Utchae-1930 Araechnae-	*Utchae-3×1, Jungji+Kunbang+Meolbang, *Araechnae-3×1, Stable+Sarangbang+Sarangbang
20	Kim Hyea-Ja	Bohyeon-Ri Jayang-Myeon	Utchae-1930 Araechnae-1950 Duji-1970	*Utchae-3×1, Jungji+Kunbang+Meolbang*Araechnae-3×1, Kitchen+Sarangbang+Stable
21	Gu Dong-Duk	Jeonggak-Ri Hwabuk-Myeon	Utchae-1870 Chodangchae-1870 Araechnae-1930	*Utchae-4×1, Jungji+Kunbang+Maru+Meolbang*Araechnae-3×1, Bangakan+Stable+Bathroom *Chodangchae-2×1.5, Chodangbang+Bangakan+Duji
22	Gu Jin-Young	Jeonggak-Ri Hwabuk-Myeon	Utchae-1940 Araechnae-1940	*Utchae-3×1, Jungji+Kunbang+Meolbang *Araechnae-3×1, Stable+Sarangbang+Sarangbang
23	Jung Dong-Seok	Jukjeon-Ri Hwabuk-Myeon	Utchae-1880 Araechnae-1990	*Utchae-3×1, Jungji+Kunbang+Meolbang*Araechnae-3×1, Warehouse 3 Room
24	Gong Ga	Jukjeon-Ri Hwabuk-Myeon	Utchae-1900 Bathroom-1990	*Utchae-3×1, Jungji+Kunbang+Meolbang
25	Empty House	Jukjeon-Ri Hwabuk-Myeon	Utchae-1920 Araechnae-1920	*Utchae-3×1, Jungji+Kunbang+Meolbang *Araechnae-4×1, Bangakan+Stable+Sarangbang+Sarangbang (Bathroom)
26	Empty House	Hwasan-Ri Hwabuk-Myeon	Utchae-1900 Araechnae-1940	*Utchae-3×1, Jungji+Kunbang+Meolbang *Araechnae-4×1, Stable+Sarangbang+Sarangbang
27	Lee Won-Dong	Hwasan-Ri Hwabuk-Myeon	Utchae-1930 Araechnae-1930 Ched-1970	*Utchae-4×1, Jungji+Kunbang+Maru+Meolbang *Araechnae-4.5×1, Duji+Dojang+Kitchen+Room+Roo *Shed-3×1.5, Shed+Stable
28	Kim Jae-Jung	Jogok-Ri Daechang-Myeon	Utchae-1832 Araechnae-1900 Ched-1970	*Utchae-4×1, Jungji+Kunbang+Maru+Meolbang *Shed-1×1
29	Han Ran-Gui	Yongho-Ri Daechang-Myeon	Utchae-1900 Araechnae-1900 Stable-1980	*Utchae-3×1, Jungji+Kunbang+Meolbang *Stable-1×1

Table 1. Continued

No	Name	Address	Chae/Building	Kan/Floor Plan
30	Empty House	Yongho-Ri Daechang-Myeon	Utchae-1900 Araeache-1940	*Utchae-3×1, Jungji+Kunbang+Meolbang *Araeache-4×1, Laundry Room+Kitchen+Room+Room
31	Jim Jin-Ha	Ogil-Dong Daechang-Myeon	Utchae-1900 Araeache-1940	*Utchae-4×1, Jungji+Junbang+Maru+Meolbang *Araeache-3×1, sarangbang+Sararangbang+Stable
32	Empty House	Ogil-Dong Daechang-Myeon	Utchae-1930	*Utchae-3×1, Jungji+Kunbang+Meolbang
33	Sung Doo-Young	Ogil-Dong Daechang-Myeon	Utchae-1900 Sarangchae-1930 Araeache-1900	*Utchae-4×1, Jungji+Kunbang+Maru+Meolbang *Aaranchae-3×2, InFrontRow-Sarangbang+Gwang+Dojang in Back row-Maru+Room+Room*Araeache-Aretbang+Bangakan+Stable
34	Kim Jae-Pil	Jikcheon-Ri Daechang-Myeon	Utchae-1915	*Utchae-6×1, Jungji+Kunbang+Maru2 Kan+Meolbang
35	Gang Heay-won	Jikcheon-Ri Daechang-Myeon	Utchae-1900	*Utchae-4×1, Jungji+Kunbang+Maru+Meolbang
36	Park Soon-Duk	Buk-Ri Bagan-Myeon	Utchae-1920	*Utchae-4×1, Jungji+Kunbang+Maru+Meolbang
37	Kim Sook-Hi	Sang-Ri Bagan-Myeon	Utchae-1860 Dojang-1980	*Utchae-3×1, Jungji+Kunbang+Meolbang *Dojang-3×1, Duji+Dojang+Bathroom
38	Empty House	Sang-Ri Bagan-Myeon	Utchae-1920 Araeache-1940	*Utchae-3×1, Jungji+Kunbang+Meolbang *Araeache-4×1, Dojang+Kitchen+Sararangbang 2 Room
39	Hwang Hae-Jong	Dangdong-Ri Bagan-Myeon	Utchae-1900 Araeache-1970	*Utchae-3×2*Araeache-3×1
40	Nam Pil-SU	Doyu-Ri Bagan-Myeon	Utchae-1860 Araeache-1940 Jamsil, Duji	*Utchae-3×1, Jungji+Kunbang+Meolbang*Araeache-4×1, Warehouse+Kitchen+2 Room
41	Lee Jong-Yong	Samgwi-Ri Gogyong-Myeon	Utchae-1900 Araeache-1980	*Utchae-3×1, Jungji+Kunbang+Meolbang*Araeache-3×1, Shed+Stable+Gatbang
42	Park Gwang-Hui	Samgwi-Ri Gogyong-Myeon	Utchae-1880 Araeache-1940 Bathroom-1990	*Utchae-3×1, Jungji+Kunbang+Meolbang *Araeache-4×1, Stable+Sararangbang 2 Room+Dojang
43	Park Yeong-Bae	Pagye-Ri Gogyong-Myeon	Utchae-1920 Araeache-1940 Dojang-1970	*Utchae-3×1, Jungji+Kunbang+Meolbang *Araeache-4.5×1, Bangakan+Stable+Sararangbang 2 room *Dojang-2×1

Table 1. Continued

No	Name	Address	Chae/Building	Kan/Floor Plan
44	Kim Sun-Rye	Pagye-Ri Gogyong-Myeon	Utchae-1940 Araeache-1940 Shed-1980	*Utchae-3×1, Jungji+Kunbang+Meolbang *Araeache-3×1, Gwang+Sararangbang+Sararangbang *Shed-Gwang 2 Room+Bathroom
45	Empty House	Pagye-Ri Gogyong-Myeon	Utchae-1880 Araeache-1920	*Utchae-3×1, Jungji+Kunbang+Meolbang *Araeache-3×1, Dojang+Stable+Sararangbang

Table 2. Arrangement of '—' Type

2/1912/SE	4/1900/S
6/1900/SW	24/1900/S

Note. No/Building Period of Utchae/Building Period of Araeache/Direction

Note. J (Jungji)/K (Kunbang)/M (Meolbang)

는 경제여력이 크게 작용했고, 동일 계층이라도 차이가 난다. 아래채가 2동일 경우에 1동은 아래채(또는 사랑채) 또 1동은 마구간(채), 초당(채), 방앗간(채), 도장, 헛간 등 건물의 고유 기능 및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운다.⁹⁾ 아래채 규모는 대개 2~4칸에 흠집이며, 일부 6칸 겹집¹⁰⁾도 있다. 방앗간(채)이나 도장, 마구간(채)의 규모는 대개 1~3칸에 흠집이며, 구조는 블록·토담·흠벽돌조가 많다. 특히 아래채(사랑채)가 겹집인 경우는 계층으로는 중농층, 배치 형태로는 튼 ㄷ자형이 많다. 아래채의 평면은 대개 가장 또는 남자의 침실인 사랑방과 저장·수장 공간인 도장·고방 그리고 농우를 사육하는 마구 등으로 꾸며진다. 경제여력에 따라 방앗간을 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옷채와 비교해 구조, 형태에서 격이 다소 떨어지나, 겹집의 아래채는 옷채처럼 전문 장인에 의해 주로 건축되었다. 아래채 위치는 튼 ㄱ자형 28가옥 중 옷채의 정지 앞

9) 채 별 명칭은 크게 채와 간으로 구분되는데, 채는 적어도 2칸 이상의 실(간)이 조합된 경우를 지칭하고, 간은 마구간, 방앗간 등 단칸에 단일 목적을 가진 공간을 주로 지칭한다.

10) 아래채(사랑채)가 3칸 겹집인 예는 한란귀가옥(후대 소실), 성두영가옥, 직천리 공가(후대 소실) 등이 있다.

Table 3. Arrangement Type of 'ㄱ' Type

Jungji Front of Utchae					
	1/1850/1920/SE	3/1900/1974/SE	7/1900/1930E	8/1900/1930/SE	12/1900/1970/WS
	13/1940/1940/S	14/1920/1920/ES	16/1900/1950/ES	20/1930/1950/WS	25/1920/1920/ES
	26/1900/1940/E	30/1900/1940/WS	31/1900/1940/ES	40/1860/1940/SE	42/1880/1940/ES
Meolbang Front of Utchae					
	15/1860/1972/E	18/1900/1990/NW	19/1930/1970/WS	23/1880/1990/ES	37/1860/1980/ES

Note. No/Building Period of Utchae/Building Period of Araecha/Direction

Note. J (Jungji)/K (Kunbang)/M (Meolbang)/S (Sarangbang)/S1 (Magu)/D (Dojang)/D1 (Duji)/B (Bangan)

또는 측면에 직교 배열된 예가 20가옥¹¹⁾, 옷채 멀방 앞 또는 측면에 직교 배열된 예가 8가옥¹²⁾으로 나타났다. 즉 아래채 위치는 대체로 옷채의 정지 앞 또는 측면에 직교 배열되는 것이 일반적인 배치양상이다. 이때 아래채의 실 구성은 마구¹³⁾, 도장¹⁴⁾, 사랑방 순으로 옷채의 정지 또는 멀방 가까이에 배열되었다.

그 실례를 보면, 정영칠가옥은 옷채 정지 앞에 마구간채(도장+마구), 멀방 앞에 아래채(방앗간+사랑방+갯방), 보현리 공가는 정지 앞에 아래채(마구+사랑방 2칸), 멀방 앞

에 도장(채), 구동덕가옥은 옷채 정지 앞에 초당채(초당방+방앗간+두지), 멀방 앞에 아래채(마구+사랑방 2칸), 이원동가옥은 옷채 정지 앞에 아래채(광+부엌+방 2칸), 멀방 앞에 마구간(채), 성두영가옥은 옷채 정지 앞에 아래채(3칸 겹집), 아래채 앞쪽의 대문 곁에 방앗간채(초당방+마구+방앗간), 박영배가옥은 옷채 정지 앞에 도장(채), 멀방 앞에 아래채(방앗간+마구+사랑방 2칸), 김순례가옥은 옷채 정지 앞에 아래채(도장+사랑방 2칸), 멀방 앞에 도장(채)를 각기 배열하였다. 실 배열로 보면, 뜰 ㄱ자형처럼 명확히는 않지만 대체로 마구와 도장이 옷채 가까이에 배열되는 양상은 비슷하다. 마구는 냄새나고 비위생적인 공간이지만 농작업상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소를 사육관리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가장이나 일꾼의 침실인 사랑방·초당방 옆에 마구를 배열해 관리가 용이하도록 했다.

한편 옷채와 아래채의 배치관계는 거의 직교배치이다. 아래채가 옷채보다 늦게 건립하더라도 또는 대지 규모나 대지조건이 다소 불리할지라도 아래채는 반드시 옷채 앞에 배열되었다. 이런 배경에는 취락구조, 마당과의 관계, 담장 설치나 대문 위치 등 여러 요소와 관계성을 가지면

11) 김간섭가옥, 김재필가옥, 강장원가옥, 강순예가옥, 김기옥가옥, 정경달가옥, 김옥석가옥, 함작지가옥, 정호진가옥, 이해관가옥, 이태동가옥, 김혜자가옥, 구진영가옥, 죽전리공가(25), 화산리 공가(26), 한란귀가옥, 용호리 공가(30), 김진하가옥, 남필수가옥, 박광희가옥, 파계리공가(45) 등 20가옥

12) 이동근가옥, 정필오가옥, 이옥생가옥, 정동석가옥, 김숙이가옥, 김진홍가옥, 이종용가옥(예전 건물은 정지 앞쪽에 위치) 등 7가옥

13) 김재필가옥, 상신리공가, 김기옥가옥, 함작지가옥, 정호진가옥, 구진영가옥, 죽전리공가, 화산리공가, 용호리공가(지금의 부엌 개조), 남필수가옥

14) 김간섭가옥, 김옥석가옥, 박영배가옥, 파계리 공가

Table 4. Arrangement of 'ㄷ' Type

10/1900/1970/2010SW	11/1900/1900/1950/SE
21/1870/1870/1930/E	27/1930/1930/1970/SE
28/1832/1900/1970/SE	33/1900/1930/1900/SE
43/1920/1940/1970/E	44/1940/1940/1980/SE

Note. No/Building Period of utchae/Building Period of Araechnae/Building Period of the others/Direction

Note. J (Jungji)/K (Kunbang)/M (Meolbang)/S (Sarangbang)/S1 (Magu)/D (Dojang)/D1 (Dujji)/B (Bangakan)

서 결정되기도 한다. 각 채를 분산배치하되 상징적 위치에 근거해 정연한 규범성¹⁵⁾을 준수한 점은 영남 지역의 민가와 크게 다르지 않는다. 더욱이 건립 당초부터 여러 채를 염두한 배치구성이라 할 수 있다.

2. 평면형태

민가의 평면은 한반도내에서도 지역의 기후 및 지형적 조건 그리고 생업조건과 취락구조, 경제력에 따라 지역적 차이를 보인다. 한편 동일 지역내에서도 경제여력에 따라 채별 규모·형태에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영남 지방 민가는 3칸 오막살이집과 여기에 마루가 첨가되어 발전된 민가계열 그리고 마루가 첨가되지 않은 계열로 크게 나

눈다. 특히 후자는 경북 북부지방에서도 일부 유형이 분포한다¹⁶⁾.

영천 지역 민가의 옷채 평면은 3칸 홑집인 오막살이집 계열과 여기에 마루가 첨가된 4칸 一자형 홑집인 영남형이 공존하는 단순한 양상을 띤다. 옷채의 단순한 평면과 달리 아래채는 경제력에 따라 규모, 형태에 따라 차이가 난다. 옷채의 평면 및 형태적 특성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옷채

영천 지역 민가의 옷채는 3칸 홑집인 오막살이집과 여기에 마루나 첨가된 4칸 또는 5칸의 영남형이 일반적이며, 유일하게 황해증가옥만 6칸 반겹집¹⁷⁾이다.

Table 5. Floor Plan of Uthchae

Floor Plan	3 Kan	Yeongnam Type	
		4 Kan	5 Kan
Single Floor Plan	30EA	13EA	1EA
Fold Floor Plan	1EA		

(1) 오막살이집

오막살이집은 첫째, 조사가옥 45가옥 중 30가옥(66%)으로 영남형보다 수적 우세를 보였다. 평면은 정지+큰방+벌방(또는 머릿방, 갯방)으로 단순하며, 계층상으로는 주로 소농층 주거이다. 정지는 취사·난방 및 가사작업 공간, 큰방은 머느리나 자녀의 거처, 벌방은 자녀나 시부모 등이 주로 거처하는 공간이다. 때에 따라서는 큰방에 시부모, 벌방에 머느리부부가 거처하기도 한다. 또 부속채가 없는 경우에 알곡식을 벌방에 보관하기도 했다.

Table 6. Scale of 3Kan

Cheok	6~7	7~8	8~9	9~10	10~11	11~12	12
Jungji			4EA	5EA	9EA	9EA	3EA
Kunbang		2EA	18EA	9EA	2EA		
Meolbang	1EA	5EA	24EA	1EA			

정면 간살은 정지가 2,800~3,600 mm 범위로 10~11척대와 11~12척대의 비율이 높았다. 큰방은 8~9척대, 9~10척대 순으로, 벌방은 8~9척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정면 간살의 크기는 정지, 큰방, 벌방 순이다. 둘째, 퇴와 쪽마루가 없어 큰방 앞·뒷문 앞에 뜰마루를 두었거나 일부는 쪽마루나 뒷마루를 後設하기도 했다. 셋째, 창호를 보면, 큰방은 앞·뒷문과 정지사이의 셋문 등 3곳에 문을 내었다. 셋문은 큰방과 정지사이에 낸 사잇문으로 31가옥 중 18가옥에서만 확인되었다. 또 큰방은 앞문에 1~2

16) 조성기(2006). 한국의 민가(p. 128). 서울 : 한울아카데미.

17) 영천 지역 민가에서 유일하게 채집된 반 겹집이다. 규모는 3×2칸이며, 평면은 좌측에 2칸통의 정지를 기준으로 앞열은 마루와 방, 뒷열은 2칸통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뒷열 방 1칸 뒤에는 반침이 설치되어 있다. 구조는 민도리 3량가에 우진각집이다.

15) 강영환(1995). 한국 남부지방 민가의 지역적 특성. 한국건축역사학회, 24-32.

Table 7. Floor Plan of 3Kan

4/Roof Repairs	6/Roof Repairs	12/Roof and Closet Repairs
19/Roof Repairs	20/Roof Repairs, Jjockmaru Installation, Wall Repairs of Jungji	22/Roof Repairs
23/Roof Repairs, Wall Repairs of Jungji	26/Roof Repairs	29/Roof Repairs
32/Roof Repairs	38/Roof Repairs	40/Roof Repairs
41/Roof Repairs, Jjockmaru Installation, Door Change	43/Roof Repairs	44/Roof Repairs

Note. Chang Factor

Note. J (Jungji)/K (Kunbang)/M (Meolbang)

짝 여닫이세살문, 뒷문은 봉창만 둔 경우가 2가옥,¹⁸⁾ 후대 반침 또는 방 확장 등으로 뒷문이 철거된 경우가 7가옥이다. 멀방은 앞·옆문 등 2곳에 1~2짝 여닫이세살문 또는 죽살문을 달았을 뿐 뒷문이나 큰방사이에 문을 낸 집은 한 집도 없다. 아마 3칸 오막살이집에서 각 방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여진다.

방 문의 재료 및 형태는 세살문, 죽살문, 사시문, 미닫이유리문, 개폐방식은 여닫이, 미닫이, 규격은¹⁹⁾ 1짝, 2짝 등으로 각기 세분된다. 민가의 건립시기에 따라 사용재료 및 개폐방법, 규격에서 시기적 차이가 확인된다.

넷째, 장방, 다락, 벽장, 반침 등 거주 공간내 소규모 저장 및 수납공간을 갖춘 집은 극소수이다. 대개 방 안에 시렁을 걸어 이불이나 가사용품을 간단히 수납했다. 장방(장고방)은 정지 부뚜막 위에 설치된 큰방용 소규모 수납 공간이다. 정호진·이해관·이옥생·오길리공가·남필수·박영배가옥 등 31가옥 중 6가옥에서만 확인되었다. 한편

Figure 1. The Hige Panel of a Door1

Figure 2. The Hige Panel of a Door2

Figure 3. Jungji Door1

Figure 4. Jungji Door2

Figure 5. Door Type1

Figure 6. Door Type2

장방과 정지 위 다락이 함께 설치된 예는 김순례가옥 뿐이다. 이 집은 건립시기가 1940년대로 늦고, 전면에 텃마루가 설치되는 등 영천 지역 민가가 후대 변화된 과정을 볼 수 있는 예이다. 다섯째, 정지에는 밥 짓는 아궁이(솔)와 국·찌개용 아궁이(솔) 2개가 설치되었는데, 1970년대부터 아궁이 1개를 연탄보일러로 개조해 사용한 경우가 많다. 여섯째, 지붕가구는 모두 3량가에 걸쳐마, 우진각 지붕에 추가이다. 특히 지붕가구는 양 측면의 보 위에 마룻대쪽으로 곡재의 충량을 직교로 결구하고 여기에 추녀와 서까래를 건 원초적인 지붕가구가 많이 사용되었다.

(2) 영남형

영남형은 오막살이집의 큰방과 멀방사이에 마루 1칸~2칸을 추가해 4칸~5칸 규모로 확장된 一자형 홑집이다. 오막살이집처럼 영남형도 되나 쪽마루, 정지 상부에 장방·다락 또는 각 방 뒤에 반침·벽장 등이 설치된 예가 적다. 그 외 다른 특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면 간살은 정지가 10~11척대, 큰방과 마루, 멀방은 8~9척대에 비율이 높았다. 3칸 오막살이집의 간살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영남형의 가장 큰 특징적인 공간인 마루는 7~9척대에 7~8척대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옷채 전체의 정면 간살로 보면, 큰방이나 멀방보다 작다. 즉 온돌방 사이에 마루는 설치했지만 규모면에서는 다소 소극적인 양상이다.

둘째, 마루는 큰방과 멀방사이에 설치되어 마당과 방사이의 전이공간·제사·家神을 모시는 공간 등 생활 및 의례·수장 공간이다. 영남형의 마루는 뒷벽에 1~2짝의 창호를 달고, 전면은 개방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외형이다. 영천 지역의 영남형 14가옥 중 11가옥은 마루 전면에 판벽을 치고²⁰⁾ 외·쌍여닫이 울거미띠장널문을 달아 폐쇄적인 마루방으로 꾸몄다. 이런 마루의 외형은 영남형의 개방적인 마루와 비교해 크게 다른 점이다. 더욱이 마

18) 강혜원가옥, 강장원가옥

19) 외여닫이 규격은 605~690×875~1,100 mm, 쌍여닫이 규격은 1,065×1,215 mm 범위이다.

20) 자양면 보현리 이태동가옥은 2005년에 마루를 철거하고 방으로 개조하면서 앞문을 세살문로 달았다. 구동덕가옥 역시 2000년경에 마루를 방으로 개조하고 앞문을 사시문으로 교체했다.

Table 8. Scale of Yeongnam Type

Cheok	7~8	8~9	9~10	10~11	11~12	12
Jungji			1EA	6EA	2EA	4EA
Kunbang	2EA	6EA	5EA			
Maru	6EA	7EA				
Meolbang	2EA	8EA	3EA			

루 뒷벽도 심벽에 외·쌍여닫이 널문 또는 띠장널문을 단 집도 있지만 창호없이 심벽 또는 판벽으로만 마감한 집도²¹⁾ 상당수 있다. 이런 옷채의 마루의 외형은 영천 지역에 소재하는 상류주거, 재실, 누정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Table 9. Floor Plan of Yeongnam Type

1/Roof Repairs	2/Roof Repairs	5/Roof Repairs
7/Roof Repairs, Jungji Remodeling, Door Change	17/Roof Repairs, Maru Remodeling, Jjockmaru Installation	27/Door Change, Jjockmaru Installation
28/Roof Repairs, Jjockmaru Installation	31/Roof Repairs, Jungji Remodeling, Door Change	33/Jeongji Remodeling, Door Change
34	35/Roof Repairs, Jjockmaru Installation, Door Change	36/Door Change of Jeongji

Note. Chang Factor

Note. J (Jungji)/K (Kunbang)/M (Meolbang)/D (Dojang)

이런 폐쇄적인 마루는 영남형의 소분류인 남동 해안형의 안청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안청은 호남지방 민가에서 폐쇄적이고 수장공간으로서의 비중이 높은 마루방인데, 영남 지방 민가의 개방적인 대청의 영향을 받아 생활공간으로 변용되는 양상을 반영한 것²²⁾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런 안청과 같은 마루가 영천 지역의 영남형 민가에 폭넓게 적용된 것이다. 영천 지역이 영남형내에서도 남동 해안형과 인접해 있어 영향을 받았음이 분명해 보인다. 다만 기후적으로 영남 남부 지역중에서도 겨울이 타 지역보다 길고 추우며, 봄바람이 거센²³⁾ 영천의 기후적 특성도 상당부분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1900년대 이후에 건립된 영남형 중에는 개방적인 마루가 설치되기

도 했다. 즉 영천 지역의 영남형은 영남 지방의 민가형을 기본형으로 하되 인근 남동 해안형과 영천의 기후적 영향 등으로 지역 민가형이 중복권역임을 알 수 있다.

Figure 7. Front Door of Maru1

Figure 8. Front Door of Maru2

셋째, 영남 지방의 민가와 비교해 퇴나 쪽마루가 설치된 예가 적다. 이원동가옥·김재정가옥·김진아가옥·적천리공가2는 정지를 제외한 3칸 전면에 쪽마루가 설치되었는데, 後設 한 것이다. 한편 상신리공가는 큰방 앞에 평상을 놓아 이용했고, 적천리공가1은 큰방과 멀방 앞에 쪽마루 그리고 마루 뒤와 멀방 우측면에 각기 툇마루를 설치한 것으로 영천 지역 민가에서는 보기 드문 예이다. 이 집은 건립연대가 1915년이고, 산간임에도 천석꾼 집으로 불리우는 집이다. 따라서 영천 지역 민가에서 툇마루의 존재는 건립시기, 계층과 관계있어 보인다.

넷째, 지붕가구는 단순한 3랑가이고, 지붕형은 맞배, 우진각, 팔작, 지붕재료는 기와, 슬레이트, 기와형 컬러강판 등 다양하다. 지붕재료는 70년대 새마을사업때 초가를 기와·슬레이트 등으로 1차 개량되었고, 80년대 이후로는 경량에 값싸고 내구성이 좋은 기와형 컬러강판으로 재차 지붕개량하는 집이 늘고 있다.

Figure 9. Gable Roof 1

Figure 10. Gable Roof 2

22) 조성기(2006). 한국의 민가(pp. 172-175). 서울: 한올아카데미. 호남 지방 민가는 정지+큰방+마루(마리)로 구성된 3칸 오막살이집에서 정지 앞에 모방 또는 정지 옆에 작은방이 부가되는 단계로 발전한다. 특히 폐쇄적인 안청을 중심으로 양쪽에 온돌방을 배열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런 안청의 위치 및 기능을 갖는 지역은 전라남·북도인 소백산맥 서쪽 지방이며, 남해 도서 연안을 따라 동쪽으로 확산되어 영천·청송 지방까지 확산되고 있다. 남동 해안 지방 민가에서 안청은 수장 공간에서 생활공간으로 변용되어 영남 지방 민가 요소와 호남 지방의 민가 요소가 분명히 함께 공존하면서 융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남동 해안 지방은 남해 바다를 통하여 두 문화권의 교류가 자유롭게 이루어져 두 문화권의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23) 영천군정서편찬위원회(1994). 영천군정서. 영천 : 영천시. 1960년부터 년도별 기온, 강수량, 기상개황 등을 살펴 볼 때, 최고, 최저 기온은 경북 북부지방과 유사하고, 강수량은 타 지역 평균치 이하이다.

21) 마루 뒤에 창호가 없는 가옥 예는 김간섭가옥, 강장원가옥이다.

지붕형은 팔작 1가옥, 맞배+가적지붕형 1가옥, 우진각²⁴⁾ 4가옥, 맞배 7가옥 등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초가에 맞배지붕이 많다는 점이다. 3칸 오막살이집의 지붕형은 모두 우진각인 점과 차이가 크다. 영천 지역민은 맞배지붕으로 지은 집을 ‘뱃집’이라 부르며, 우진각·팔작지붕으로 지은 집보다 격이 높은 집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영천 지역민은 ‘뱃집은 벼슬 꽤나 하는 사람이 짓는 집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양상은 영천 지역의 상류 주거에 본채(정침) 상당수가 맞배지붕인 점과도 일맥상통하고 부분이다.

2) 부속채

웃채가 거주 위주의 공간인 것에 비해 부속채는 거주+농작업·사육·저장 등 다채로운 공간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영천 지역 민가의 부속채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뜬 ㄱ자형 배치에서 아래채 규모가 1칸인 한란귀가옥은 마구간채, 2칸인 김간섭가옥(아랫방+도장), 강순예·정필오가옥(사랑방+마구)이 있다. 3칸은 김재필·김기옥·보현리공가·함작지·정호진·이동근·이옥생·구진영·김진하가옥(마구+사랑방+갯방), 김옥석가옥(도장+마구+변소), 정영칠가옥(방+사랑방), 정동석(도장), 김숙이가옥(두지+도장+변소), 이종용(헛간+마구+갯방), 파계리 공가(도장+마구+사랑방), 4칸은 강장원가옥(방앗간+아랫방+초당방+도장), 죽전리공가2(방앗간+마구+사랑방+갯방), 용호리 공가(부엌+방+방), 김진홍가옥(도장+부엌+사랑방+사랑방), 남필수가옥(창고+부엌+방+방), 박광희가옥(마구+사랑방+사랑방+도장)등이다.

뜬 ㄷ자형인 정영칠가옥은 아래채(방앗간+사랑방+갯방)와 도장채(도장+마구), 보현리공가가 아래채(마구+사랑방+사랑방)와 도장, 구동덕가옥은 아래채(마구+사랑방+사랑방)와 초당채(초당방+방앗간+두지),이원동가옥은 아래채(두지+도장+부엌+방)와헛간채(헛간+마구),성두영가옥은 사랑채(6칸 겹집-앞열에 도장+광+사랑방, 뒷열에 사랑방+사랑방+사랑마루)와방앗간채(초당방+마구+방앗간), 박영배가옥은 아래채(방앗간+마구+사랑방+사랑방)와 도장채(도장 2칸), 김순례가옥은 아래채(도장+사랑방+사랑방)와 헛간채(도장 2칸+변소)로 구성되었다.

이상과 같이 아래채 및 부속채의 규모, 형태는 대체로 경제력에 따라 차이가 나며, 동일 계층에서도 다르다. 부속채 종류는 아래채 또는 사랑채, 마구간(채), 방앗간(채), 초당(채), 고방(채) 등 다양하다. 부속채가 1동이면 대체로 아래채(또는 사랑채)라 부르고, 규모는 정면 1~4칸에 홑집 위주이다. 지붕은 우진각이 많다. 2동이면, 아래채 1동과 마구간(채), 방앗간(채), 도장, 초당채 등 주로 농작업과 관련된 부속채로 구성된다. 건립시기는 민가별로 차이가 있긴 하나 대체로 웃채나 아래채보다 늦게 지은 경우가 많다. 규모는 1~3칸에 홑집이며, 지붕은 맞배·우진각

이다. 구조, 형태는 웃채·아래채와 동일한 목조가구식도 있지만 대개는 흙벽돌, 토담조, 블록조가 많다.

아래채 평면은 대개 마구와 함께 가장의 침실인 사랑방(아랫방) 또는 일꾼의 침실인 초당방·갯방 곁에 배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웃채는 거주공간, 아래채는 거주+사육·저장공간, 그외 부속채는 그야말로 농작업 관련 공간으로 구성된다. 특히 아래채에 방앗간²⁵⁾이 있는 민가는 동일 계층이라도 비교적 형편이 나은 경우라 할 수 있다.

IV. 변화양상

영천 지역 민가의 변화양상은 크게 부속채의 건립시기에 따른 배치의 변화, 각 채의 외형 및 내부공간의 개조와 실 증축, 지붕개량과 구조변경 등이다. 먼저 배치의 변화는 웃채 단독 구성에서 웃채+아래채 2동이 뜬 ㄱ자형, 웃채+아래채+부속채(헛간, 마구간 등) 3동이 뜬 ㄷ·ㄱ자형으로 진화하는 양상을 띤다. 이런 배치 변화의 배경은 무엇보다도 경제여력이 크게 좌우했다. 외형 및 내부공간의 변화는 정지 개조, 방 확장과 창호 교체(1짝→2짝, 죽살문·세살문→샤시문, 유리미서기문 등), 쪽마루 설치, 지붕 개량, 처마에 물흙통 설치, 세탁실 겸 화장실 증축, 취사 및 난방 설비의 도입 등이다.

3칸 오막살이집의 변화양상을 보면 첫째, 방 앞에 쪽마루를 후설한 예가 소수 있고, 뒷마루는 1920년대이후의 민가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둘째, 창호의 재료, 개폐방법, 구조에서 정지 문은 앞·뒤로 판벽을 치고 상인방에는 장둔테²⁶⁾, 하인방에는 통둔테를 설치해 두짝 통널문 또는 띠장널문이 1920~30년대 이후로는 상·하인방에 못으로 쪽둔테²⁷⁾를 박고 문 널의 상·하로 띠장을 낸 띠장널문이 설치되기 시작했다. 또 사용재료 및 개폐방법, 규격에도 시기적 차이를 보였다. 3칸 오막살이집중에 건립시기가 빠른 민가의 방 문은 죽살문²⁸⁾이 많았고, 그 외는 세살문이다. 개폐방법은 대개 외여닫이세살문인데, 민가에 따라서는 1960년대이후로 쌍여닫이세살문²⁹⁾, 1980년대부터는 미닫이유리문³⁰⁾, 샤시문³¹⁾ 등으로 교체하는 경향을 보였다. 창호의 이런 변화는 편리한 출입과 밝은 실내를 위해서였다. 셋째, 건립시기가 늦은 민가일수록 정지 위에 다락이 설치되기도 했다. 넷째, 지붕개량은 1970년대 새마을

25) 방앗간은 집집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 내에서도 제법 경제력이 있는 집에만 설치되었다.

26) 상인방에 두짝 널문의 장부를 끼워 회전할 수 있게 만든 고정 받침채이다.

27) 상·하인방에 두짝 널문을 고정하기 위해 만든 문 장부가 끼워져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든 짧은 받침채로 주로 못 박아 고정했다.

28) 죽살문은 문틀거미 안에 대나무 살대를 짜 넣어 만든 창호로 오막살이집이나 건립시기가 비교적 빠른 민가에서 많이 보인다. 살대의 방향은 45°, 60° 등 다양하다.

29) 큰방 앞문의 외여닫이 세살문은 김숙이가옥이 1970년대, 이종용가옥은 1960대 등 상당수 가옥이 쌍여닫이 세살문으로 교체했다.

30) 정영칠가옥(1980년경), 보현리공가(2010년), 이동근가옥(1970년대)

31) 죽전리공가

24) 우진각 지붕가구는 3칸 오막살이집과 동일하다.

Table 10. Sample Of Chang Factor

No	Arrangement	Building & Chang Period														
		1860	1870	1880	1890	1900	1910	1920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2011
8						▲			●				◆			◆/★ (2005)
10						▲				●			◆/●			◆/★ (2002)
11					▲				●				◆			◆/2008★/2010
15		▲											● ◆ ★		★	
17				▲						●			◆/※			★/Maur→ Room
27									▲●				⊙			
44										▲●				⊙		★/Meolbang→ Kitchen

Note. Utchae Building - ▲/Araechnae Building - ●/Busokchae Building - ⊙/Roof Repairs - ◆/Jungji & Room Remodeling - ★/Jjockmaru Installation - ※
Note. J (Jungji)/K (Kunbang)/M (Meolbang)/D (Dojang)

사업때 초가를 슬레이트나 기와 등으로 개량했고, 1980년대부터는 경량에 값싸고 내구성이 좋은 기와형 컬러강판 등으로 재차 개량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또 짧은 처마를 보완하기 위해 물홈통을 설치하거나, 건물 앞·뒤로 공간을 확장하는 집도 많다.³²⁾ 다섯째, 정지는 1970년대 이후 채래식 아궁이 2개 중 1개를 연탄보일러로 개조한 경우가 많았고³³⁾, 1980년대부터 현대식 부엌으로 개조하고 기름 보일러를 설치하는 등 취사와 난방이 분리되는 경우가³⁴⁾ 늘어났다. 이는 현대적인 주생활의 영향 및 취사와 난방 설비의 보급에 따른 결과이다.

한편 4~5칸의 영남형 민가에서 시기적 변화양상은 첫째, 3칸 오막살이집처럼 되나 쪽마루가 없는 평면에서 1960년대부터 방 앞에 쪽마루를 後設한 경우가 많다. 둘째, 마루는 영남 지역 민가의 대청과 같이 생활·의례 공간이지만 전면에 판벽을 치고 문을 닫 폐쇄적인 마루방으로 꾸민 점이 다르다. 1910년대에 건립된 민가 중 일부는 영남형 마루처럼 전면이 개방된 것도 있다. 셋째, 부속채는 1980년대부터 현대화된 농기계의 보급으로 마구, 도장, 방앗간 등의 공간은 그 기능이 소멸됨에 따라 헛

간·창고 등으로 변용되는 사례가 많다. 더욱이 가족 수의 축소 및 독거 노인이 늘어 나면서 거주 공간을 아래채로 옮겨 사용하는 예도 늘고 있다. 넷째, 정지 주변으로 세탁실 겸 욕실·화장실을 증축한 사례가 1990년 이후로 나타난다. 다섯째, 1960년대 이후로 밀방이나 처마 밑, 마당에 보관하던 알곡식을 두지³⁵⁾에 저장하기 시작했다. 두지의 등장은 식구가 늘고 수확량이 증가해 별도의 저장공간이 필요해 집에 따라 중농층에서 주로 설치되었다.

V. 결 론

영천 지역 민가를 조사하고 배치 및 평면적 특성과 그 시기적 변화양상을 살펴 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치형태는 살림채인 옷채(또는 큰채)와 부속채인 아래채(또는 사랑채), 마구간(채), 방앗간(채), 도장 등이 안마당을 중심으로 분산 배치되는 것으로 영남 지역의 민가 배치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배치관계는 옷채 앞에 아래채를 비롯한 부속채를 직교배치하는 정연한 배치규범을 준수하고 있다. 배치형태는 옷채 단독구성, 옷채+아래채의 튼 1자형, 옷채+아래채+부속채의 튼 2자형 3유형으로 분류된다. 채별 건립시기로 본 영천 지역 민가의 배치는 옷채 단독구성인 1자형 또는 튼 1자형이나 2자형에서

32) 정영칠가옥은 1982년경에 기둥 및 지붕가구는 그대로 두고 벽체를 블록조로 확장하고, 전면은 처마를 달아내어 블록벽을 치고 사시문을 닫 전실을 증축했다.

33) 정동석가옥, 오길리 공가, 김숙이가옥, 파계리가옥, 신방리 공가, 강혜원가옥 등 6가옥

34) 정지 개조는 대개 창호 교체(사시문 등), 큰방과 밀방의 사이벽 제거와 방 확장 등이 동반되었다. 대개 공가이던 것이 외지인이 구입해 수리한 경우가 많다. 박광희가옥, 죽전리 공가, 이등근가옥, 함작지가옥, 보현리 공가, 정영칠 가옥, 김기옥가옥 7가옥

35) 함작지 · 정호진(2개) · 이등근 · 이해관 · 이태동 · 이옥생 · 김혜자 · 김숙이 · 남필수 · 황해종가옥 등에 남아 있다. 규모는 단칸 또는 2×1칸이고, 재료는 판벽에 마루바닥으로 꾸민 경우가 많다. 지붕은 맞배에 함석을 이은 집이 많다.

튼 ㄷ자형으로 또는 옷채 단독 구성에서 튼 ㄱ자형에서 튼 ㄷ자형으로 변화발전하는 양상을 띤다. 이런 배치유형은 경제여력과 생업이 크게 작용했고, 동일 계층이라도 아래채 및 부속채의 규모, 형태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둘째, 평면은 옷채가 정지+큰방+벌방의 3칸 홑집인 오막살이집과 여기에 마루 1~2칸이 첨가된 영남형으로 크게 구분된다. 오막살이집과 영남형은 공통적으로 퇴나 쪽마루가 발달하지 못한 점, 방 뒤로 벽장이나 반침 그리고 정지에 장방이나 다락 등 실내 수납공간이 발달하지 못한 점은 영남 지방의 민가와 비교해 조금 특색있는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영천 지역의 영남형에서 주목할 것은 마루인데, 영남 지방의 민가처럼 생활 및 의례 공간이지만 전면에 판벽을 치고 문을 달아 폐쇄적인 마루방으로 꾸민 점에 차이가 있다. 이런 폐쇄적인 마루의 존재는 영남형내 남동 해안형의 안청과 유사하다. 따라서 영천 지역의 영남형은 영남 지방의 민가형을 기본형으로 하되 인근 남동 해안형의 영향을 받아 지역 민가형이 중복되는 권역임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영남 지방의 민가에 옷채 지붕형 상당수가 우진간 또는 팔작지붕인 것에 비해 영천 지역의 영남형 옷채 지붕은 초가에 거의 맞배이다. 지역민은 맞배집을 ‘뱃집’이라 부르며, 우진각이나 팔작집보다 격이 높은 상류계층의 집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래채(사랑채)는 거주+농작업 위주의 공간으로 평면은 마구+사랑방+사랑방(아랫방·갯방)의 3칸 一자형이 가장 일반적이다. 특히 마구는 대개 사랑방(초당방) 옆에 배열되었다. 마구는 냄새나고 비위생적인 공간이지만 예전 농촌의 생업 조건상 가장의 관리 및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었던 공간이었음을 시사한다.

셋째, 민가의 구조 및 형태상의 시기적 변화는 크게 지붕개량, 정지 개조, 창호 교체, 쪽마루 설치, 방 확장, 기단 수리, 처마 달아내기, 실 확장 등 다양하다. 이중 쪽마루는 1960년대부터, 뒷마루는 1920년 이후의 민가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창호는 정지문이 장·통둔테+통널문에서 1920~30년대부터 쪽둔테+띠장널문으로, 방 문은 외여

단이 죽살문·세살문에서 1960년대부터 쌍여단이세살문으로 많이 교체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는 사시문, 유리미서문 등으로 교체되기도 했다. 이런 창호의 변화는 이용의 편리성과 밝은 실내를 추구한 결과이다. 정지 및 내부공간의 개조 및 변용은 1980년대부터 급속히 이루어졌다. 이런 요인은 가족 수의 격감, 현대 주생활의 영향, 취사 및 난방 설비의 보급 결과이었다. 특히 마구는 영농기계의 보급으로 그 기능이 상실되어 창고 등으로 변용되었다. 또 정지 뒤로 세탁실 겸 화장실, 보일러실 등 변화된 현대 주생활에 맞춘 각종 필요한 실을 증축한 사례가 많았다. 또 1960년대부터는 알곡식을 별도 보관하는 공간인 두지가 중농층 일부에서 등장했다.

이상, 본 논문은 민가의 지역적 분류상 영남형중에서도 영천 지역 민가를 채집해 조사하고 분석한 것이다. 그나마 영천 지역의 산간에 빈 집이긴 하나 원형의 민가가 다수 남아 있어 본 조사가 가능했다. 영남형내에서 영천 지역 민가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선행의 연구성과를 재검토해 본다는 점, 점차 소멸해 가는 지역 민가를 채집해 민가 연구에 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이번 연구의 의의라 생각된다. 다만 영남형내 영천 지역만 집중 분석하고 주변지역간의 비교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이번 논문의 한계라 생각된다. 추후 조사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REFERENCES

1. 강영환(1995). 한국 남부지방 민가의 지역적 특성. 서울: 건축역사학회.
2. 영천시(2011). 영천시 통계연보 2011. 영천: 영천 시회계과.
3. 영천문화원(1997). 영천의 문화. 영천: 한빛.
4. 영천군정사편찬위원회(1994). 영천군정사. 영천: 영천시.
5. 조성기(2006). 한국의 민가. 서울: 한울아카데미.

접수일(2012. 10. 3)
수정일(1차: 2013. 1. 29)
게재확정일자(2013. 2. 14)